

지역 소식통



부안군, 변산마실길 1코스 임시 우회탐방로 운영

부안군은 변산마실길 1코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변산해수원 구간이 '새만금 웰린지테마파크' 공사로 중단돼 우회탐방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회탐방로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과 새만금홍보관을 연결하는 육교를 시점으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측후면을 경유해 변산로(구 30번 국도)를 따라 변산해수원까지 이어진다. 새만금 웰린지테마파크 공사는 2026년까지 예정되어 있어 부안군은 탐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초부터 우회탐방로 개설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고 4월 22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사업 70명 선정

정읍시는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70명을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 분야에 진출하도록 돕고 고품질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선정자는 독립경영 연차별로 영농정착지원금이 지원된다.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는 월 100만원, 3년차는 월 90만원씩 지급된다. 또한 희망 시 세대당 최대 5억원 한도의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융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날 제2청사에서 선정자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선정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사업 시행 지침과 의무사항 △지원금 수령 및 사용처 안내와 소통강의 △정읍에 정착하고 있는 선배 청년농업인과의 만남 등이 진행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제21회 청보리밭 축제 개막

심덕섭 고창군수 "바가지요금 단속 철저... 맘껏 봄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

고창군이 지난 20일 오후 공음면 학원농장에서 제21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를 개막식을 열었다.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20만여평의 광활한 대지에 눈부신 초록물결과 함께 먹거리, 즐길거리와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축제다. 이날 개막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해 일본 시만토정 의장단과 서울 마포·성북·관악구 및 부산 동래구, 고창함 등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단체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공음면 어울림 난타 오프닝 공연과 함께 고창이 자랑하는 보리로 만든 보리떡케이크 커팅식으로 기념식을 진행 후 식후 행사로 군민들과 함께 보리밭 사잇길을 걸었다. 개막식행사와 더불어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청소년 랜덤 플레이댄스 이벤트도 전국 5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해 흥을 돋우고 축제를 생동감있게 만들어 군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올해 청보리밭 축제는 이날 개막을 시작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되며 초록물결이 어우러진 청보리와 음악

이 함께하는 축제로 보리밭 사잇길 버스킹, 관광객 참여 공연 등 다채로운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제21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3회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 선정된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축제로, 불거리와 먹거리 등에서 아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해줄 것"이라며, "축제장은 물론 다수가 모여드는 장소도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해 군민과 관광객이 맘껏 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전북 최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부안군, ISO 37001 도입 및 자율적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부안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을 도입하여 중소벤처기업인증원(원장 겸직업)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군은 지난 19일 국제표준 인증기관에게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조직의 부패방지를 위해 국제 사회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2016년 제정한 반부패 경영시스템 표준으로서, 부안군은 ISO가 요구하는 부패방지 방침 및 매뉴얼 수립, 부패리스크 평가, 내부심사, 개선 등 실행과정을 밟았다. 부안군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부

안형 ESG+N' 모델을 구축하여 긍정 운영 전반에 ESG 가치를 녹여낸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G(Governance 지배구조)'가 의미하는 준법·윤리경영 구현을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자율적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여 부패방지 가능성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본 인증은 전 직원이 부패방지를 위한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부패행위를 사전 통제하고 청렴윤리행정을 실천하는 모범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선정

쌍화차커뮤니티라운지서 건강·일상생활·취업활동 지원

정읍시는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클럽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회복지원 클럽하우스는 정신질환

자·정신장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낙인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회복해가기 위해 활동하는 공간이다. 시는 지난 2월 2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쌍화차커뮤니티라운지서에서 주 3회 운영하고 있다. 클럽하우스에서는 대상자 요구를 반영한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함께 일하기 △건강·일상생활 지원 △취업 활동 △주거생활 지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클럽하우스의 신념은 정신질환이 한 인간의 전부가 될 수 없으며, 정신질환자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욕구와 능력,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직원과 회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곳으로서 앞으로 이용할 회원들의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클럽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 정읍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 시행

정읍시가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진행한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 등이 함께하는 범국가적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관 합동으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집중안전점검단을 꾸려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은 어린이 놀이시설, 노후 건축물, 주민 신청시설 등을 포함한 복지시설, 교통시설 등 총 10개 분야 107개소의 안전취약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82개소와 비교해 25개소의 시설물을 추가로 점검해 시민들

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어플을 활용한 안전 신고 활성화와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내 집, 내 점포 자율 점검하기' 등 시민 참여형 안전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내 주변 시설물들의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해, 안전한 정읍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현재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0명을 농가에 배치했다.

#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속속 입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현재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0명을 농가에 배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캄보디아 등 MOU 체결국가와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1,000여명이 입국했고, 앞으로도 농가 필요시기에 맞춰 캄보디아·베트남 계절근로자 500여명이 지속적으로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올 상반기 농가형 계절근로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 등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총 16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에서 승인·배정받았다. 지난 1월에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주무팀장, 농촌인력팀장이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방문해 지역 영농환경에 적합한 신규 근로자를 직접 선발했다. 이외에도 중대 위반사항 확인, 무단 이탈 방지대책 논의를 진행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현재 고창군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소통과 고충 해결을 위해 통역관과 인권지킴이 전문관을 배치하고, 언어소통도움이 책자를 각 나라별로 제작하여 배포했다. 계절근로자는 고창 인근 병원에서 마약검사를 진행하고 농가주와 근로자 준수사항 교육, 입국 환영식을 진행하고 있다. 최대 8개월간 수박, 멜론, 고추 등 고창 지역특화작물을 재배현장에 투입돼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4월 중순부터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선운산 농협에서 진행된다. 하루 단위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하여 장기체류가 부담스러운 소규모농가, 고령농가에 영농기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